

9인제 배구 동호인 축제

제1회 광주시체육회장배 ... 65개팀 1068명 내일부터 이틀간 열전

염주체육관 등 8개 경기장

9인제 배구 동호인들의 축제 한마당이 열린다. 제1회 광주시체육회장배 9인제 배구 대회가 3일 오전 10시30분 염주실내체육관에서 개회식을 갖고 이틀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광주시체육회·광주시9인제배구연맹이 주최하고 광주시배구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는 65개팀 1068명의 동호인이 참가해 염주·빛고을 체육관 및 염주초·화정남초·주월초 등 6개 보조 체육관에서 스파이크 열전을 벌인다. 남자부는 교차원부(17개팀 242명), 장년부(6개팀 96명), 직장부(4개팀 64명), 남자클럽부(20개팀 417명)로 나뉘어 진행되며, 여자부는 자모부(9개팀 119명), 여자클럽부(9



박길재 회장

점이다.

우승팀에게는 상금 50만원과 트로피, 준우승과 공동3위에게는 각각 30만원과 2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가 수여된다. 각 부별 8강전 진출팀(4강 진출팀 제외)에게는 10만원의 상금을 준다.

개인상 시상도 이뤄져 각 부별 최우수선수 1명에게 기념패가 주어진다.

수 1명에게 기념패가 주어진다.

추첨한 경품도 마련됐다. 추첨을 통해 김치냉장고, 청소기, 압력솥, 프로배구 연맹 구단 선수 사인볼 등이 경품으로 지급된다.

대회를 주관하는 박길재 광주시9인제배구연맹 회장은 "2011년 대미를 장식하는 이번 대회는 광주시의 큰 행사와 배구인들의 큰 잔치가 될 것이다"며 "배구를 통해 육체적·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미덕을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다. 동호인들의 친목과 우정을 다지는 배구 한마당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개회식에서 박길재 회장은 강운대 광주시체육회장으로부터 9인제 배구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동호인 모여라"

이용대 광주시 배드민턴 강습

4일 빛고을체육관에서

'윙크보이' 이용대가 광주를 찾아 배드민턴 동호인 강습회를 연다. 강습회는 4일 오후 2시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리며 이용대는 원포인트 레슨, 팬 사인회, 기념촬영, 동호인과의 혼합경기 등의 이벤트에 참가한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체육회의 시민건강증진사업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이용대를 키운 김중수 전 국가대표 감독도 스타강사로 함께 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탁구 열정의 스매싱

1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열린 2011 MBC 탁구최강전 1차대회 여자단체전 1라운드 한국마사회-대우증권 경기에서 한국마사회 서효원이 대우증권 송마음에게 강한 스매시 공격을 하고 있다.

1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열린 2011 MBC 탁구최강전 1차대회 여자단체전 1라운드 한국마사회-대우증권 경기에서 한국마사회 서효원이 대우증권 송마음에게 강한 스매시 공격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KIA 타이거즈 선수들 12월에 뭘 하나



김동재 코치 돕기 일일호프 사인회

이호신·차정민·조현·신종길 결혼

골든글러브 후보들은 시상식 참여

12월 프로야구의 휴식기가 찾아왔다. 지난 30일 마무리캠프가 종료되면서 KIA의 2011시즌 공식훈련은 마무리 됐지만 결혼러시와 각종 시상식 등으로 호랑이 군단의 12월도 분주할 전망이다. 휴식달 첫 주말부터 바쁜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3일 김동재 코치 돕기 일일호프가 열리면 광주와 일본에서 훈련을 해왔던 선수단이 모처럼 한 자리에 모인다. 오후 시간 중장으로 일대와 롯데백화점에서 사인볼 판매와

사인회 행사를 갖는 선수단은 저녁시간에는 서방맨으로 변신해 일일호프를 진행한다. 일일호프를 끝낸 선수들은 4일에는 정장을 차려입고 원정길에 나서야 한다. 외야수 이호신과 투수 차정민이 4일 오후 1시와 2시에 각각 백년가약을 맺기 때문이다. 이호신이 수원, 차정민이 부산에서 결혼식을 올리면서 선수단은 야수조와 투수조로 나뉘어 결혼식장을 찾은 예정이다. 오는 10일과 11일에는 불펜포수 조현과 신종길이 풀필남 대열에 합류하는 등 올겨울 각 구단 선수들의 결혼 러시가 이어지면서 선수들은 하객으로 부지런을 떨어야 한다. 올 시즌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는 더욱 빠듯한 스케줄이 기다리고 있다. 11일 골든글러브 시상식을 비롯해 각종 시상식과 연말행사가 열리면서 서울과 광주를 오가는 스케줄을 소화해야 한다. 특히 2011 MVP 윤석민은 각종 시상식의 주연으로 초대를 받으면서 시즌보다 바쁜 12월을 보내게 됐다. 공식훈련은 끝났지만 2012시즌을 위한 팜방울도 계속된다. 핀 제거수술로 마무리 캠프에 참가하지 못했던 나지완 등 재활군 선수들은 3일부터 재활훈련을 재개한다. 어깨와 팔꿈치 수술 등으로 재활 중인 투수 이범석·한승혁 그리고 한기주는 따뜻한 판으로 이동해 몸 만들기에 주력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대호

이대호 일본 오릭스 입단

연봉 2년 간 105억

자유계약선수(FA) 이대호(29)가 다음 주 고향인 부산에서 일본프로야구 오릭스 버펄로스 입단을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일본의 스포츠전문지 스포츠초치는 1일 이대호가 오릭스와 2년 간 7억엔(약 105억원) 조건으로 FA 계약에 합의, 6일 한국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보도했다. 이대호의 일본 진출 조건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승엽이 2003년 지바 롯데 마린스에 입단할 당시 받았던 2년간 총액 5억엔, 2년 전 김태균(전 지바 롯데)의 3년간 총액 7억엔을 웃도는 조건이다. /연합뉴스

한국에서 열리는 입단 기자회견에는 오카다 카키노부 오릭스 감독이 직접 참석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오카다 감독은 "오릭스 클린업트리오를 맡을 수 있는 외국인 타자 영입이 내년 시즌의 가장 큰 첫 번째 과제이며 이대호가 그 첫 번째 후보"라고 이대호에게 많은 기대를 보내 바 있다. 스포츠초치는 현장의 최고 책임자가 해외 입단 기자회견에 발걸음 옮기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주목했다. 이대호는 6일 부산에서 입단 기자회견을 마친 후 7일 일본 오사카로 건너가 공식 입단식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30년 타이거즈 30년

<57> 2009 시즌

WBC 2위 야구 열기 프로야구로 확산 KIA 박빙의 승률로 페넌트레이스 1위

2009시즌은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으로 서막을 열었다. 2006년 초대 대회에서 4강 신화를 일궈낸 대한민국 야구가 3년 만에 결승전에 진출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결승전서 연장10회 속직 일본에 3-5로 석패했으나 대한민국의 '야구 신화'가 진화했고, 국민의 감동과 행복지수는 높아졌다. 2009시즌은 흥리에 한하여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고, 8월17일에는 사상 첫 전명 드래프트제로 신인을 지명하였다. 시즌 막판까지 치열한 레이스를 펼친 끝에 KIA 타이거즈(0.609)가 SK 와이번스(0.602)를 1경기 차 박빙의 승률(0.007)로 따돌리고 페넌트레이스 1위를 차지했다. 디펜딩 챔피언 SK는 방아쇠·탈삼진·타율·홀런 등 전 부문 성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도 팀 승률에서 밀려

KIA에 1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WBC의 개가로 '국민 감독'으로 칭송받은 김인식 감독이 이끄는 한화 이글스는 1986년 팀 창단(당시 빙그레)때 최하위를 기록한 이후 23년 만에 두 번째 최하위의 수모를 겪었다. 한화는 김인식·김태균·이범호 등 'WBC 국민 스타'를 배출했음에도 팀차연패인 12연패를 당하는 아픔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간판 타자 김태균이 경기 중 뇌진탕으로 쓰러지기도 한 불운한 해가 되고 말았다. 2009시즌 '타고투저' 현상이 극명했다. 2008시즌 총 홈런 수가 646개였는데 2009시즌에는 79%가 증가한 1155개였을 정도로 투수들이 수난을 당한 해였다. 2009시즌 준플레이오프전은 3위 두산과 4위 롯데의 대결로 펼쳐졌다. 1차전서는 공동 다승왕(14승)인 롯데 선발투수 조정훈이 현란한 포크볼로 두산 타자들을 유리해 7-2로 승리하며 기선을 제압했

다. 그러나 저력의 두산은 대반격에 나서 2차전에서 금민철의 무실점역투로 6-0승, 김동주의 만루홈런포함 장단 18안타의 맹폭으로 3차전 12-3승, 4차전서는 김선우의 선발호투를 앞세워 9-5로 승리하며 1패 후 3연승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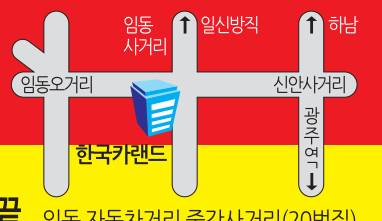
상승세를 탄 두산은 선발 금민철의 호투와 고영민과 최준석의 홈런으로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3-2의 신승을 거두었다. 2차전 역시 두산이 선발 세제노의 호투와 고영민의 홈런으로 4-1로 연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SK는 디펜딩 챔피언의 저력과 두터운 미들맨을 활용해 3차전에서 다섯 번째 투수 고효준의 구원승으로 3-1승을 거뒀다. 4차전에서는 네번째 투수 이승호가 구원승으로 8-3승, 5차전서도 역시 두 번째 투수 이승호가 구원승을 챙기며 14-3의 대승을 거두었다. SK는 공포의 미들맨들과 플레이오프 MVP '가을의 사나이' 박정권의 발군의 활약에 힘입어 플레이오프전서 2연패 후 3연승을 거두는 저력을 보여주었으나, 한국시리즈 7차전서 KIA에 통한 일격을 당해 2인자가 되고 말았다.



김재요 <조선이공대 교수·한국야구기독교회회장>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

http://www.hkcarland.com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랜드가 하는일 - 루마썬팅, 3M코팅, 모비스썬팅, 맥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용리넨, 허부언더코팅,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비게이션,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사크안테나, 자동차경비일체, 빗데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 천연가족시트, 인조가족시트, 수입차 가족시트제조, -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 모비스순정용품, 키약세사리 일체, 전국최저가 판매, 국내최대 500평매장, 주차장 700평 주차격정 끝

루마썬팅 | 3M썬팅 | 모비스썬팅

앞유리 썬팅을 하면 열차단·자외선 차단 끝

- 자동차 앞유리 썬팅
- 자외선 차단 (기미, 주근깨, 검버섯, 예방효과)
- 뜨거운 태양 (열차단)
- 뛰어난 시야확보 (안전성)

천연가족시트

세련된 정교함이 돋보이는 가족시트

최저가

- ▶ 승용 5인기준 38만원 = 28만원 부터
- ▶ RV 5인기준 40만원 = 30만원 부터

타이어 | 휠 | 경정비

한국, 금호, 넥센, 미쉐린, 수입 타이어 4짝 교체시 스노우체인 12만원 상당 무료증정(공짜)

- 알라이먼트 3-5만원 무상점검
- 펄싱 펄크 무상점검
- 타이어와 뒤 순환교체 평생 무료점검
- 브러쉬용워셔액 무료증정

공짜 타이어 상담전화: 062-528-2258

광택 | 유리막코팅 | 맥과이어스 | 3M

오리지널 맥과이어스 광택제 사용 "전국 최저가"

- ▶ 소형 25만원 ⇒ 13만원
- ▶ 중형 30만원 ⇒ 18만원
- ▶ 대형 35만원 ⇒ 23만원
- ▶ RV 35만원 ⇒ 23만원
- ▶ 수입차 40만원 ⇒ 28만원